

이경순 시의 아나키즘 연구

김 경 복*

차 례

1. 서론	2) 부정정신으로서 니힐리즘과 성상 파괴
2. 이경순 시의 아나키즘 양상과 의미	3) 지배의 역사 부정과 자본주의 문명 비판
1) 지배계급 대한 반항감정과 자유 추구	4) 실험적 기법과 아방가르드 미학
	3. 결론

국문초록

이경순은 1920년 일본에 건너가 약 20년 간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조선 아나키스트 조직인 <흑우회>에 가담하고, 일본 아나키스트들과의 연합체 <흑색청년연맹> <자유연합>과 교류하며 아나키즘 운동가로 활동하였다. 해방을 맞아서도 아나키스트 신문인 『자유민보』의 논객으로 활동하였다. 1947년부터 시를 발표하여 세권의 시집[『생명부』(1952), 『태양이 미끄러진 빙판』(1968), 『역사』(1976)]을 남겼고, 유고집으로『동기 이경순 전집』(1992)이 있다. 이러한 이경순의 시에는 아나키즘 사상이 배어들어 있어 아나키즘 사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경순 시의 아나키즘적 특성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이경순의 시적 정신은 아나키즘 사상의 제일의적 성격인 반항감정을 두드러지게 보인다. 아나키즘의 본질을 지배에 대한 거부로서 반항감정이라 한다면, 이것은 그의 시 『장미 먹은 사형수』, 『말(馬)』에 잘 나타난다. 저항하지 못하는 민중을 ‘소’나 ‘말’이라는 대상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억압과 착취의 부당함을 말해준다. 이경순 시에 보이는 반항감정은 바로 사회적 제도 속에 희생되는 억눌린 자들의 사회적 항의를 뜻한다. 이러한 점은 개인의 자유와도 관련되는 것으로서, 반항 감정과 권위주의적 체제 부정은 결국 사회적 개인으로서 인간의 자유문제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경순의 시는 권위에 대한 저항을 곧잘 니힐리즘으로 드러낸다. 이때 니힐리즘은 당대의 제도와 인습을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한 저항적 인식을 의미한다. 이경순은 일제강점기에 아나키즘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자유를 위한 직접행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고, 해방 이후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여서 허무와 부정정신으로 이를 드러나게 되었다. 그의 시 『무하유하(無何有何)』, 『위치의 단면(斷面)』 등에 나타난 허와 무에의 지향 감정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와 아울러 이경순 시에 보이는 신 부정과 성상과괴도 허무주의 연장선상에서 권위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지배이데올로기 부정은 결국 지배자를 우상화하는 전통과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경순의 시에서 이것은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기 쉬운 역사와 자본주의 문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역사』, 『현장』 등의 시에서 역사가 지배의 논리에 의해 매우 왜곡돼 있음을 비판하는 데에서, 그리고 『결투』, 『태풍』 등의 작품에서 현대문명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넷째, 이경순의 시적 형식은 아방가르드 미학으로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아나키즘 사상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나키즘 사상의

미학적 지향점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거부와 함께 그것을 지탱하는 부르주아 미학의 거부에 있는 혁명예술론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경순 시에 기존 시와 다른 실험적 기법을 유도하는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풍으로 나타나는데, 「잔(盞)」, 「기상도」, 「비」 등의 시에 보이는 이질적 사물들의 병치, 자동기술법에 의한 낯설게하기, 형태주의적 속성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

이경순의 문학은 권위에 대한 반항감과 자유 추구, 허무주의와 성상 파괴를 통한 지배이데올로기 부정, 기존의 역사와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불신, 개인적 도전과 내면성이 강조되는 아방가르드 미학의 표출 등을 두고 볼 때 아나키즘 사상이 그의 시적 특질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 이경순, 아나키즘, 반항감정, 니힐리즘, 성상파괴, 아방가르드, 다다이즘

1. 서론

동기(東騎) 이경순(1905-1985)은 경남 진양군 외율리에서 태어나 1920년 도일하여 약 20년 간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조선 아나키스트 조직인 <흑우회>에 가담하고, 일본 아나키스트들과의 연합체 <흑색청년연맹> <자유연합>과 교류하며, 그 동지들과 아나키즘 문예평론지 《흑색전선》 《니힐》 등의 사상지를 연대집필로 발간하기도 했다.¹⁾ 해방을 맞아서

1) 이경순의 아나키즘과 관련된 전기적 생애는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경순, 「그 때 그 시절 -나의 詩的 遍歷-」, 『동기 이경순 전집』, 자유사상사, 1992, 363-378쪽 참조. 이외 일본에서의 아나키즘 운동에 대해서는 무정부주의운동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1978과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그리고 박환, 『식민지시대 한인아나키즘 운동사』, 선인, 2005, 또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 -운동편』, 지식산업사, 2015 등의

는 해방기의 ана키스트 신문인 『자유민보』의 논객으로 활동하기도 했고²⁾, 진주를 중심으로 파성 설창수와 함께 영남문학회를 조직하여 동인지 <영문>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경순의 시집으로는 『三人集』³⁾ 속의 『生命賦』(영남문학회, 1952), 『太陽이 미끄러진 氷板』(문화당, 1968), 필사본 『生命譜』(1975.6.18.), 『歷史』(학예사, 1976)가 있고, 유고집으로 진주신문사가 낸 『東騎 李敬純 全集』(자유사상사, 1992)이 있다.

이경순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편이다. 아직 이경순만을 대상으로 한 학위논문은 없고, 평론과 몇 편의 학술논문이 있을 뿐이다. 크게 이경순의 시에 대한 연구는 그 시의 주제와 기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ана키즘 사상적 측면을 해명하는 연구로 나뉘어진다. 강희근은 일찍이 이경순 시에 대한 평론을 쓴 바 있다⁴⁾가 나중에 학술적 접근으로 논문을 썼다. 첫 논문은 이경순 시의 표현방식을 모더니즘 기법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의 시적 주제는 허무와 절망, 비판과 고발, 원죄의식과 내세적 발상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⁵⁾ 이 논문은 이경순이 ана키즘 사상과 관련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그러한 관련성을 해명하기보다 모더니즘 기법 차원에서 이경순 시의 표현적 특징을 밝히고 있고, 시의 주제도 일면적 파악에 머무르고 있다. 무엇보다 이 논문은 이경순의 초기 시인 『三人集』 내의 『생명부(生命賦)』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찰하는 바람에 한계를 보인다. 강희근은 그 후에 『동기 이경순 시 연구 2』란 제목으로 그의 시집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시기 별로 그의 시적 표현이 갖는 모더니즘적 양상을 밝히고 있다.⁶⁾ 이경순 시의 초기와 중기 시에 나타나는 전위적이고 실

재일 한인 ана키즘 운동 편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2) 『자유민보』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광우, 『회고와 추억』, 자가편집(비매품), 2003, 45-53쪽 참조.

3) 설창수, 이경순, 조진대의 3인의 작품집이다. 설창수와 이경순은 시를 실었고, 조진대는 소설을 실었다.

4) 강희근, 『自由意志와 悟性的 美學』, 『월간문학』, 1975년 10월호, 174-185쪽.

5) 강희근, 『이경순 시 연구(1)』, 『배달말』 제19호, 배달말학회, 1994. 12, 161-185쪽.

험적인 기법을 여전히 모더니즘이란 용어로 해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아나키즘 사상과 관련되어 표출되어 나타나는지를 밝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아나키즘 사상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김경복은 20세기 한국 아나키즘 시문학 전반을 다루는 가운데 이경순 시의 아나키즘 사상적 측면과 그 사상이 어떻게 형식적 특성을 갖고 표출되는지를 밝히고 있다.⁷⁾ 그러나 이 논문은 이경순의 몇 작품을 들어 그 특성을 밝히고 있는 만큼 작품의 전면적 특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태진은 이경순만을 대상으로 그의 아나키즘적 특성을 밝히는 논문을 썼으나 아나키즘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것을 아나키즘 사상의 일환으로 설명한다든지, 나비의 비상과 생리를 아나키즘적 특징으로서 자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⁸⁾은 아나키즘 사상에 대한 지나친 협소화이자 왜곡의 양상이라 볼 수 있다. 송희복은 경남 아나키즘 시인과 소설가를 조명하는 자리에서 이경순 시의 아나키즘 특성을 짚막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생태주의적 관점과 관련지어 그의 시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다.⁹⁾

이외 이경순의 원전비평과 관련하여 이순옥의 『三人集』에 대한 해설의 논문이 있고¹⁰⁾, 이경순의 전기적 생애와 연관하여 그의 시적 주제의 변화 과정을 추적한 양왕용의 글이 있지만¹¹⁾ 이 두 글은 아나키즘에 대

6) 강희근, 『동기 이경순 시 연구 2』, 『경상어문』 제13호, 경상대 경상어문학회, 2007, 199-222쪽.

7) 김경복, 『한국 아나키즘 시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8, 76-78쪽, 213-216쪽.

8) 정태진, 『이경순의 아나키즘 시 연구』, 『단산학지』 제5집, 전단학회, 1999.12, 316-346쪽.

9) 송희복, 『경남의 지역문학과 아나키즘의 상관성』, 『경남지역의 문학』, 국학자료원, 2013, 133-171쪽.

10) 이순옥, 『근대 진주 지역문학과 『三人集』』, 『지역문학연구』 제10호, 경남·부산 지역문학회, 2004년 가을, 303-325쪽.

11) 양왕용, 『동기 이경순 시인의 삶과 시세계』, 『한국 현대시와 지역문학』, 작가마

해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

이경순은 일본에서 20년 간 생활하면서 아나키즘 운동에 참여한 전기적 사실을 갖고 있다. 때문에 국내로 들어온 뒤의 그의 활동과 시작(詩作)은 그의 회고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나키즘 사상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경순 시의 특성을 아나키즘 사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주제와 형식 측면을 고루 살펴 그의 시적 특색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경순 시의 아나키즘 양상과 의미

아나키(anarchy)란 말은 그리스어 anarchos에서 유래된 말로, 부정사 an에다 지배를 뜻하는 archos가 결합되어 ‘지배자가 없다’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경순도 이러한 아나키즘에 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하였음을 그의 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나키즘”이란 말이 났으니 이 “아나키”란 語義에 關하여 識者層에서도 종종 誤解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내가 知識하고 있는 程度에서 말하면 『強勸의 否定』 『支配 없는』 그러나 그것은 물론 모든 조직의 부정 이 아니고 不秩序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相互扶助와 共存共榮으로한 獨立 自主 自律 創造 이러한 人知最上斷案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며 人間생활의 最高의 道德이요 倫理라고 常식하고 있다.¹²⁾

이 내용을 볼 때 이경순은 일본에서 조선독립의 방법적 필요의 대상으로 아나키즘 사상을 깊이 습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이 그의 내면에 정착되었다고 볼 때 비록 분단과 반공 이데올로기로 아

을, 2006, 54-94쪽.

12) 이경순, 「향토와 민족문학」, 『영남문학』 제6집, 영남문학회, 42쪽.

나키즘 사상의 노골적인 표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생득적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의 시에서 검출되는 아나키즘 사상의 특징을 지배 계급 대한 반항감정과 자유 추구, 부정정신으로서 니힐리즘과 성상 파괴, 지배의 역사 부정과 자본주의 문명 비판, 실험적 기법과 아방가르드 미학 등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배계급에 대한 반항감정과 자유 추구

아나키즘 사상의 중심적 성격은 반항감정이다. 반항감정은 역사적 변천과 대응하여 그 특징이 약간씩 달리하여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사상의 본질적 속성 상 지배에 대한 거부로서 반항감정은 변함없다. 아나키즘의 연구자 다니엘 게링은 아나키즘 사상의 핵심을 무엇보다도 반항심에 찾고 있고¹³⁾, 또 다른 연구자 우드코크도 아나키스트는 권위를 부정하고 많은 아나키스트는 그것과 싸운다¹⁴⁾라고 말한다. 이 내용은 이경순의 시적 정신과 일치한다. 다음 두 편의 시에서 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소
소는 몰랐다.
어인 일인지 알 리가 없었다.

고삐를 끌기에
꼬리를 흔들며 따라만 갔다.

간 곳은 소장터

그래도 몰랐다.

13) 다니엘 게링, 하기락 역, 『현대 아나키즘』, 도서출판 신명, 1993, 53쪽.

14) 조지 우드코크, 하기락 역, 『아나키즘 -사상편』, 형설출판사, 1972, 11쪽.

고삐를 끌기에

꼬리를 흔들며 따라만 갔다

이제야

소가 들어가는 곳은

들어가는 곳은 —

아아! 팔려 가는 死刑囚

美學을 배우지 못한 獸族의 슬픔?

지내간 봄 도가리발 두덕에서

한 떨기 薔薇를 먹었더니!

— 이경순, 『薔薇 먹은 死刑囚』 전문¹⁵⁾

내사

千里를 걸은 말

발톱 모지라지고

갈 길도 머-르다

무거운 짐에 원망도 없이

모진 채찍에 겁내지도 않는다

지내온 里程標마다

뜨거운 입김을 내뿜어 놓고

다만

바라노니

이 고삐를

15) 이경순, 『東騎 李敬純 全集』, 자유사상사, 1992, 29-30쪽.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는 이 전집에서 인용하고,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시와 산문은 원래 서지 사항을 밝힌다.

조금
늦춰 주려무나!

- 『馬』 전문

위 두 편의 시는 저항하지 못하는 민중을 힘 있는 자가 압박하고 착취함을 ‘소’나 ‘말’이라는 대상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소』에서 시적 화자는 소라는 존재가 주인, 즉 지배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 “팔려 가는 死刑囚”가 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착취와 억압이 전개됨을 아이러니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馬』에서도 그 점은 피지배계층으로서 당하는 설움을 “발톱 모지라지고”와 “모진 채찍”, 그리고 “이 고삐를/ 조금/ 늦춰 주려무나”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모두 지배계급의 강권에 압제당하고 있는 민중의 표상을 소나 말로서 형상화내고 있는 데 이는 바로 자주권 박탈과 관련된 반항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시들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다분히 관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것은 해방 후 당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정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도 동족상잔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아 ‘적’의 개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억압도 거부한다는 아나키즘 정신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당시 사회적 모순이라 할 수 있는 힘없는 자의 아픔을 고발하고 있다.¹⁶⁾ 피지배계급으로서의 민중에 대한 애착과 지배계급에 대한 반항감정의 표출로서 아나키즘 사상을 논의할 때 위 시는 힘없고 억울한 존재인 ‘소’와 ‘말’로 피지배계급의 의식과 감정을 담아냄으로써 아나키즘시의 일정한 경계를 보여준다.¹⁷⁾ 그 점에서 반항감정은 바로 사회적 제도 속에 희생되는 억눌

16) 김경복, 『한국 아나키즘 시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8, 77-78쪽.

17) ‘소’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같은 아나키스트 권구현의 시를 보면 보다 잘 알 수 있다.

屠獸場에쓰을여 드러가는소를보고/나는울었다 나는울었다/反抗할줄모르는 어린애처럼/부드러운눈만 씹먹이며/터벅터벅드러가는/그둔한 발작옥땃헤서/가연

린 자들의 사회적 향의를 뜻한다.

이러한 반항감정은 지배에 대한 분노가 극단화될 경우 저항적 ‘행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즉 본능적이고 잠재적인 것으로 자유의 침해 받은 개인의 순수한 저항과 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¹⁸⁾ 다음 시가 이를 암시한다.

먼동 트는 가지에서
永遠을 冥想하는
너는
죽음을 찾는 懷疑者이나
내
너에게 哲學을 가르칠지며

검은 帳幕에서
萬有를 凝視하는
너는
사람을 지키는 信者이나
내
너에게 行動을 보여주리.

- 「올빼미」 전문

은 人生의/마지막노래를 들었노니/나는참으로 울었다/나는참으로 울었다//그러나 이것은 내의눈물이안이라/저소의 눈물이다/저소의反抗을대신한 피의눈물이다//오 동모야//울어라 갖치울자/가슴을 두다리며/땀을 구르며/힘차게 소래쳐울자/저소의 눈물을 대신하야/힘차게 소래쳐울자/어대서든가/우리를부르는 소리가/들일째 까지/들일째 까지

- 권구현, 「屠獸場」 전문(『黑房의선물』, 영창서관, 1927, 68-70쪽)

이 시 역시 억압받는 민중의 표상으로 소를 등장시키고 이 소를 도살하는 도살자를 지배자로 치환시켜 거기서 소의 생명을 말살하는 폭력에 대한 저항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18) 장 프레포지에, 이소희 · 이지선 · 김지은 역, 『아나키즘의 역사』, 이룸, 2003, 59쪽.

언제부터 불어낸 숨결이냐!

변두리 없는 벌판에, 둥그런 꿈이 熱風을 몰고 떠오르면
머리 위로 原始를 되새기고 앉았던, 유토피안이 내일의 叛亂을 붙들여
세우고 山脈처럼 뻗어진 핏줄은,
성낸 테러리즘이 거어낸 깃발을 흔들고 달린다.

- 「노을 타는 들녘」 부분

『올빼미』에서 ‘올빼미’는 아직 자주성을 의식화하지 못한 어리석은 민중을 상징한다. 그에 따라 시적 화자는 이런 올빼미를 깨우칠 ‘철학’, 즉 아나키즘 사상을 가르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내/ 너에게 行動을 보여 주리”라는 의지적 선언을 통해 직접행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아나키스트들이 선호했던 ‘행동에 의한 선동(propaganda by deed)’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력을 동반한 개인적 행동으로 아나키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¹⁹⁾으로 보인다. 『노을 타는 들녘』에서 드러내는 “유토피안이 내일의 叛亂”을 일으킨다는 표현이나 “성낸 테러리즘이 거어낸 깃발을 흔들고 달린다”는 표현도 아나키즘 사상이 추구하는 직접 행동의 암시로 볼 수 있다. 아나키스트들이 직접행동을 원하는 것은 간접운동이 목적과 무관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직접행동만이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이 원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이다.²⁰⁾

직접 행동이 성공리에 달성되는 것은 바로 혁명이다. 아나키즘은 지배자가 바뀌는 혁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사회 전체가 바뀌는 사회혁명을 지지한다. 이경순도 이 점은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 혁명을 예찬하는 시가 그 점을 보여준다.

19) Alexander Berkman, *A.B.C. of Anarchism*, Freedom Press, 1992, p.6.

20) 콜린 워드, 김정아 역, 『아나키즘, 대안의 상상력』, 돌베개, 2004, 41쪽.

언제나, 태양의 熱炎이 쏟아지는 地上인데. 이 날도, 自由를 외치는
喊聲이 일어난다.

하여, 神은 故鄉으로 돌아가고, 人間은 民衆이란 품안으로 기여든다.

여기에, 永遠을 短縮한 忘却의 세월을 哀哭하고, 恐怖의 歷史가 넘어
가는 푸른 서늘에서,
발자국마다 피묻은 消印이 찍혀 있다.

이제는, 運命과 宿命을 同時에 反芻하는 ‘第三의 生存者’

決鬪의 論理가 끝나고, 동그란 正義의 信號旗가 올랐다.

民主 革命을 拍手하는 喝采 소리가 들린다.

가면서 돌아보는 ‘유토피엔’

- 「가면서 돌아보는 유토피엔」 부분

이 시는 4·19혁명이 끝난 뒤에 쓰여진 시다. 민주 혁명에 대해 비록
“恐怖의 歷史가 넘어가는 푸른 서늘에서,/ 발자국마다 피묻은 消印이 찍
혀 있”지만 그것은 “拍手하는 喝采 소리”로 찬양되어야 마땅하다고 밝
히면서 “유토피엔”들이 이를 이루게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유토피엔은 아나키즘 사회를 이루려는 직접 행동가, 즉 혁명가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의 저항과 거부의 표시다.
결국 그것은 개인의 자유추구로 귀결된다. 반항 감정과 국가 부정, 그리
고 권위주의적 체제 부정을 근간으로 하는 아나키즘은 결국 사회적 개
인으로서 인간의 자유문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나키즘은 그 사상의 발
상을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에서 시작한다.

절대자유주의자는 자유를 소외시키는 일체의 것에 맞서 투쟁하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장애물과 부딪친다.²¹⁾ 그 점에서 에고이스트

슈티르너의 자유관은 아나키즘 사상에서 개인의 자유관을 대표한다. 슈티르너는 의지와 본능을 옹호하고 신화나 철학의 모든 구조를 통하여 인간의 사고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을 본질적인 자아에까지 절단해 내려가면서 인간성이라든지 하는 추상적으로 일반화한 개념의 현실성을 부정한다. 그에게는 자아가 단 하나의 법칙이고, 그 외부에 있는 규율에도, 신조에도, 또는 개념에도 아무런 의무가 없다.²¹⁾ 결국 슈티르너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어느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개인의 절대적 자유와 자주라 할 것이다. 이경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다음 시로 보여준다.

너는 自由를 봤는가?

아마도, 自由는 둥글고 날카롭기로
건드리면 굴러가고, 대지르면 피가 흐른다.
아래서 부르면 위로로 떠오르고, 늘리면 터지느니

이 산머리에, 아득히 原始의 사연을, 무거운 침묵으로 누르고 앓은 바
위가 일어선다.

저편을 건너야 할 골짜기에, 새들의 속삭임은 秋風에 落葉이 지고 枯
木나무 어깨에 노을이 걸린다.

바위여. 이제야 그 돌을 던져 버리고 황혼이 녹아 내릴 별판을
외치고, 달려라. 아직은 밤이 먼 여기에.

(어찌다가)

너는 검푸른 얼굴을 하였느뇨.

- 「검푸른 얼굴을 하였느뇨」 전문

21) 장 프레포지에, 앞의 책, 54쪽.

22) 조지 우드코크, 앞의 책, 113-114쪽.

이 시는 자유의 속성을 말하고 그 자유를 억압당한 존재로 ‘바위’를 등장시켜서는 “외치고 달려라”라고 직접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 자유의 억압과 구속은 결코 멈출 수 없어 “건드리면 굴러가고, 대지르면 피가 흐른다./ 아래서 부르면 위로로 떠오르고, 늘리면 터지느니”에서 볼 수 있듯 강인한 저항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또한 절대적 자유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분단 이후의 정치적 현실로 인하여 억압받는 자아의 실상을 고뇌하는 것으로 대신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부정정신으로서 니힐리즘과 성상파괴

아나키즘 사상의 권위에 대한 저항과 폭력은 곧잘 니힐리즘(허무주의)과 결부된다. 니힐리즘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관념적 무의 세계로 침잠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것이라면 아나키즘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니힐리즘이 당대의 제도와 인습을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한 저항적 인식으로 나아갈 때 아나키즘과 니힐리즘이 곧잘 결합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아나키스트 크로포트킨이 19세기 러시아에서 풍미하던 니힐리즘에 대한 평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니힐리즘은 제일 먼저 “문명인의 인습적인 허위”에 도전했다. 절대적인 성실성이 니힐리즘의 뛰어난 특징이고 이 성실성의 이름으로 니힐리스트 자신의 이성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미신, 편견, 인습 등을 폐기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구를 한다. 니힐리스트는 이성 이외의 어떠한 권위에 대해서도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하나하나의 사회 제도와 관습을 분석하며 조금이라도 위선적인 궤변을 보면 거기에 반항한다.²³⁾

이 글에서 크로포트킨은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니힐리즘 운동이 당시 사회를 개혁하는 건설적 사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니힐리즘

23) 크로포트킨, 박교인 역, 『어느 혁명가의 회상』, 한겨레, 1985, 226쪽.

은 개인의 권리를 긍정하고 모든 위선을 부정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자유라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훨씬 고귀한 남녀로 성장하기 위한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²⁴⁾라고까지 말해 니힐리즘 인식이 우선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전통의 인습을 부정하는 점에서 아나키즘적 사고방식에 접근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경순은 일제강점기에 아나키즘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자유를 위한 직접행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점은 해방을 맞고 분단과 6·25 전란 후의 당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은 반항감정은 허무와 부정정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다음 시들이 이를 보여준다.

나는 一切
虛의 照應에서
壓縮된 하나의 에스프리
絶對의 負債에 끌리어서
나는 나의 꿈을 엮어본다.

虛妄한 論理인들
惰性의 꼬리야 어이하리
나는 可憐한 否定의 세루팡

- 「無何有何」 부분

자! 그러면 나는 올라간다. 地球의 비탈로 기어 올라간다.
絶頂이다. 등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다. 어둡다 차갑다 孤獨하다. 絶
叫한다.

瞬間 바로 순간이다. 방바닥이 떨어진다 천정이 날아간다 나는 돌아
온다. 虛에로 無에로.

야아 地球와의 이별이다. 아아! 세월이여 너는 가느냐? 오느냐?

- 「位置의 斷面」 부분

24) 위의 책, 228쪽.

이 시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虛의 照應에서/ 壓縮된 하나의 에스프리”라든지, “나는 돌아온다. 虛에로 無에로./ 야아 地球와의 이별이다. 아아! 세월이여 너는 가느냐? 오느냐?”라는 표현에서 검출되는 허무와 환멸, 즉 부정이다. 지배에 대한 반항감정이 현실적 실천성을 갖지 못하였을 때 퇴폐와 부정으로 흐르게 된다. 이 점을 이경순도 밝힌 바 있다. 그는 “나로서는 아나키즘을 비약한 니힐리스트의 허무를 사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權威를 부정하고 사물을 냉소하고 자아의 확충, 극단한 탐색을 하는 사상이나, 東洋에 있어서의 老子나 莊子の 철학과도 조금 다르다. 니힐리스트는 자유를 기조로 한 自律的 이법에 있었다는 것이며 淨化된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 사색하는 ‘허무는 창조’요, 환상은 ‘실존의 가능’이라 나의 청년 시절에는 그 나름대로 통절한 고민과 비장한 투지에도 늘 존재의 허무와 무상을 반추하고 있었던 것이리라.”²⁵⁾라고 아나키즘을 벗어난 지점에 서 있는 허무주의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니힐리즘은 현실적 실천성이 약화된 것으로의 아나키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같은 글에서 “그것을 피해서 내가 가담하고 있는 <黑友會 = 黑友聯盟>의 鄭泰成과 동반하고 나의 고향 晋州로 돌아왔다. 이 곳에서 東京農業大學 재학중인 洪斗杓과 합쳐 세 사람이 晋陽文山에 있는 靑谷寺에 채류하면서 詩를 쓴다고 핑계하고 실은 아나키즘 연구로 虛無組織과 幻想建築을 하게 된 것이니 피호봉량이란 격으로 진주경찰에 檢舉되어 洪은 면소되고 鄭과 나는 교도소로 收監되어 쇠창살 있는 방 안에서 검푸른 시간을 5개월 간 보내었다.”²⁶⁾라고 밝혀 허무주의적 사색과 행동이 결국 아나키즘 사상의 실천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시인에게 니힐리즘적 인식과 실천은 아나키즘 사상의 연속 상

25) 이경순, 『그 때 그 시절 - 나의 詩的 遍歷』, 『이경순 전집』, 367-368쪽.

26) 위의 글, 366쪽.

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니힐리즘이 갖는 부정은 아나키즘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전제가 된다는 인식일 것이다. 때문에 그가 “나에게 詩는 生에 대한 自覺인 것이다. 나에게 生의 自覺은 否定과 虛無의 表徵이다.”²⁷⁾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나키스트로서 당연한 말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절대적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회적 전통적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슈티르너가 주장하는 ‘우상파괴’는 바로 이러한 개인의 자유의식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이러한 성상 파괴, 혹은 고정관념 타파는 지배논리로 작동해 왔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은 당시 자본주의적 체제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억압성에 맞물려 생성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 인습과 제도를 거부하는 차원에서 아나키즘론자들에게는 종교는 박멸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것은 종교가 인간의 자주정신과 독립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본 까닭이다. 이경순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다음 시편들은 이경순이 신을 어떻게 부정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神은 創造의 손을 쉬고
倦怠의 하품을 하며

太陽은 醉하여서 하늘 저便에
목을 매어 달았다

灰色의 거리에서
넋빠진 껍질의 安住地는 어데메노
니힐의 蝨蠹의 最後의 殘 영를 다 핏아 버리고
나는 ‘亡人이 睡眠한 洞窟’로 찾아가련다

- 「逃走의 倫理」 부분

27) 위의 글, 400쪽.

—神은 잠잠나—

에덴 東山에서
“이브”를 안고 낮잠을 졸던
“아담”이 爆音에 놀랐다
아담의 젖 만지던 손으로
高射砲를 쏘았다.

—다시 虛無에로—

空間에는 原子爆彈이 터졌다
이것은 모든 存在를 否定하고
다시 無-本然의 姿態-에로
돌아가자는 永劫回歸이 있었다.

—二次大戰의 回想으로서—

- 『아메-바가 B29를 操縱할 때』 부분

위 두 시는 모두 신성모독을 담고 있다. 신은 잠들어 있거나, 권태롭게 존재하고, 인간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우상파괴를 넘어 성상 파괴의 모습을 보인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경순은 다른 시에서 “두 주먹을/ 높이 들어/ 蒼空을 뚫어 제쳐볼까// 두 발로/ 힘껏 차서/ 大地를 깨틀어다 볼까”(『創造의 神에 抗告함』)²⁸⁾라고 하여 아예 신에게 도전하는 형국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경순의 시적 언명은 모두 신으로 대변된 기존 이데올로기가 지배자의 논리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는 판단 때문에 나온다. 아나키즘의 이와 같은 종교 부정은 푸르동의 견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푸르동은 『經濟的 諸矛盾』이란 책에서 정부의 소멸, 재산의 평등화를 주장한 뒤 “신은 인간의 독특한 특징인 분석 예견 및 진보의 법칙에 따라 사고

28) 진주시인협회, 『등불』 4집, 1948.1, 27쪽.

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신은 역으로 뒤로 향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신에 있어서는 지성, 자유,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의 독특성이 신을 본질적으로 반문명적 반자유적 반인간적인 존재로 되게 하고 있다.”²⁹⁾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종교적 관점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神은 惡이다”라는 경구를 썼다. 크로포트킨도 종교가 갖는 해악성에 대해 “선입견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 그 근원이 종교 속에 있다는 것이 쉽게 발견될 것이다. 요술사, 기우사(祈雨師), 샤머니즘의 주술사, 승려, 목사 등에 의하여 <세계는 죄 속에 파묻혀> 있어 그들만이 악의 힘을 막을 수 있다고 전도하는 것이 종교”라고 전제 한 뒤 지배자들에 의해 주입된 “모든 종교적, 역사적, 법률적, 사회적인 교육들은 인간이 만약에 그들의 마음대로 방치된다면 야수로 타락하고 만다는 사상으로 침투되어 있다”라고 언급하고, 이 분석을 통해 지배자의 날조성을 비판하고 있다.³⁰⁾ 아나키즘에서 부정하는 종교라는 의미는 지배의 이데올로기에 부응하고 피지배계급의 의식을 왜곡시킨다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경순도 이 성상파괴가 니힐리즘과 연관됨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 그는 “그런데 이 주의는 자기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地上의 일체의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상인데 극단적인 우상파괴 사회운동으로 문학에서도 그러한 사상과 사회운동에 영향 받으면서 인간의 절망과 허무를 묘사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탈출로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³¹⁾라고 하여 니힐리즘과 우상파괴의 연관성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3) 지배의 역사 부정과 자본주의 문명 비판

지배이데올로기 부정은 결국 지배자를 우상화하는 전통과 제도를 거

29) 조지 우드코크, 하기락 역, 『아나키즘 -사상편』, 형설출판사, 1972, 140쪽.

30) 크로포트킨, 하기락 역, 『근대과학과 아나키즘』, 도서출판 신명, 1993, 53-54쪽.

31) 이경순, 『그 때 그 시절 -나의 詩的 遍歷』, 『이경순 전집』, 372쪽.

부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18세기말 봉건적 질곡으로부터 해방하려는 부르주아지의 투쟁 및 근대 사상의 새로운 비판적 태도와 밀접히 관련돼 나온 것이다.³²⁾ 그러나 부르주아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생산방식 체계와 분배 체계를 확립하고 나서부터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달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초되면서 그 이데올로기 개념은 변질된다. 이글턴이 지적한 바대로 이데올로기는 지배적 사회집단이나 계급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과 관련되면서³³⁾ 자기 기득권의 보존의 의미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사상으로서는 당위적으로 있어야만 할 비판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⁴⁾ 이는 아도르노와 호르크 하이머가 분석했듯이 어떠한 이론도 ‘자기보전’적으로 바뀌면 체제 유지를 위해 자기 밖의 대상을 도구화하게 됨에 따라 그 긍정적 추동력을 잃고 변질되고 만다³⁵⁾는 것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사회현실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든 왜곡시키고 허위의식이나 필연적 기만의 형태를 피지배자에게 주입하게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왜곡에 의해 부정되기 쉬운 것이 지배자의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다. 이경순은 이 점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 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원종일
비바람 불더니
등 뒤에 바위가 업힌다

무겁다

32) J.라레인, 한상진·심영희 역, 『현대 사회이론과 이데올로기』, 한울, 1984, 27쪽.

33) 테리 이글턴, 여홍상 역, 『이데올로기 개론』, 한신문화사, 1994, 7쪽.

34) K. 만하임,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아출판사, 1991, 271쪽.

35) M. 호르크하이머/Th. W. 아도르노, 김유동·주경식·이상훈 역,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5, 59-61쪽 참조.

차갑다
아프다
슬프다

머얼리,
걸음마다 사슬 소리!
걸음마다 사슬 소리!

벗어 던지려고 하자
발길이 비틀거린다

? 내일은.

- 「역사」 전문

뒤편은,
돌아보지 마라
쓰레기통에 쌓이는 歷史의 휴지.
대낮에, 검붉은 바다가 출렁거리는
너의 머리야.

- 「現場」 부분

원종일 뒤적거리던 唯一者의 所有를 휴지통에다 던져버리고
“짚시”의 노래를 휘파람 불며
거리로 나왔다. 나,

발길에 차인 地球가 一分間에 三六〇度로 돌아갈 때
빠터- 냄새 풍긴 自由는
이 나라 어린게 面刀칼을 주었고
唯物史觀을 生食한 北風은
혈뺨은 電線에 휘감겨 悲鳴을 날렸다.

<중략>

恍惚한 祖先의 太陽이 빛나는데
創世記를 다시 쓸 時間은 왔고나.

- 「四二七八年八月十五日」 부분

이 세 편의 시에서 역사는 매우 지배의 논리에 의해 왜곡돼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사」에서 민중들에게 주어진 역사는 “무겁다/ 차갑다/ 아프다/ 슬프다”의 현상이며, 그래서 “머얼리/ 걸음마다 사슬 소리! / 걸음마다 사슬 소리!” 나는 고통스런 과정일 뿐이다. 이 고통을 “벗어 던지려고 하자/ 발길이 비틀거린다”로 할 때 지배의 논리로 흘러가는 역사의 변화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역사의 부정적 흐름을 끊는 것은 앞에서 보았던 직접 행동에 의한 혁명이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곧 지배의 구조가 형성되고 역사는 타락한다. 시인이 보기에 지배자가 만드는 역사는 “뒤편은/ 돌아보지 마라/ 쓰레기통에 쌓이는 歷史의 휴지.”처럼 쓰레기통에 처넣어야만 하는 휴지조각 같은 것이다.

「四二七八年八月十五日」에서 보이는 우리나라의 역사 역시 매우 타락해 있다고 시인은 보고 있다. 해방 후 남북한에 펼쳐지는 역사는 “뺨터-냄새 풍긴 自由는/ 이 나라 어린애 面刀칼을 주었고/ 唯物史觀을 生食한 北風은/ 혈벗은 電線에 휘감겨 悲鳴을 날렸다.”라면서 매우 어리석고 비참하기 그지없음을 고발하고 있다. 모두 미국과 소련으로 대변된 부정적 세력에 의해 형성된 역사는 왜곡되고 편향될 수밖에 없음을 고발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인은 “創世記를 다시 쓸 時間은 왔고나”하며 부정과 변혁을 통해 새로운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소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밑바탕에는 기득권자만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당시의 중앙집권적인 국가정부에 대한 거부와 부정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나키즘이 무정부주의로 번역될 만큼 중앙집중화된 권위로서 국가의 필요성에 거부를 보이는 태도³⁶⁾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은 자본주의로 만들어진 현대문명에 대한 인식으로도 연결된다. 현대문명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과 거부는 아나키즘 사상이 갖는 호혜와 상호부조의 정신이 깃든 삶의 추구 정신과 맞닿아 있다. 다음 시편들이 이를 보여준다.

지금은 二十世紀
後半期 페이지가 넘어왔다
오늘의 題目은
決鬪!

비틀어 선 테이블 위에
주먹과 주먹 또 하나의 주먹
카네이션 百科辭典
마도로스 파이프가 落傷을 한다
正義가 힘이냐
힘이 正義냐
그것은
決鬪의 論理
다음은
否定的 論理

- 「決鬪」 부분

颱風이 上陸하던 날

<중략>

빌딩. 層階가 무너지는 빌딩. '舞蹈會의 手帖'에다 오늘밤 豫定表를 記錄하던 사나이가 回轉椅子에서 落傷을 한다. 실크햇트가 벌어지는 벽 너머로 휘바람 불며 바람을 타고 永遠을 달아난다.

- 「颱風」 부분

36) 손 쉬한, 조준상 역, 『우리 시대의 아나키즘』, 필맥, 2003, 45쪽.

이 시들은 현대문명이 갖는 부정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경순 시에 대해 그나마 심도 있게 연구한 강희근의 “『決鬪』는 文明社會의 삶의 苦惱를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現代文明의 모순과 危機의 의식이 비장한 對決정신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⁷⁾라는 말처럼 이경순은 아나키즘 사상으로 인하여 현대문명 사회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움직이고 있음에 대해 위기의식과 함께 이에 대해 대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颱風』에서 자본주의로 이루어진 물질문명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서 입증된다. 『颱風』은 그가 얼마나 현대문명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는 작품이다. 여기서 ‘태풍’은 자본주의 문명에 대해 거부하는 민중적 분노를 상징한다. 민중의 직접적 행동에 의해 현대의 문명은 “層階가 무너지”고 그 문명의 수혜자는 “落傷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문명을 거부하고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으로 운영되는 자주적 사회를 은연중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실험적 기법과 아방가르드미학

아나키즘 사상이 가지는 미학적 지향점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거부와 함께 그것을 지탱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거부에 있는 만큼 예술적 특성은 부르주아 예술론의 파괴로 나타난다. 이것은 아나키즘 사상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회상의 예술론으로서 혁명에 예술론을 의미한다.

이경순도 이 점에 동감하고 있다. 그 스스로 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밝힌 바 있다. 그것은 앞에서 본 아나키즘 사상의 표현 형태로서 문학관일 터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인간의 의의와 본질이 정신적 가치 창조의 自由에 있다고 할 때

37) 강희근, 『自由意志와 悟性的 美學 -이경순론』, 『이경순 전집』, 423쪽.

기존세계, 기존의 질서, 기성관 관념, 기성가치관 일체를 부정하고 예술 이전의 존재의 因果關係를 추구하는 것이 한 사람으로서의 시인의 태세인 것이고 그래서 작품내용에서도 저항성과 사회의식에 예민하고 정확한 가치관으로 한 편의 시가 쓰여져야 함은 시인의 사명이라 하겠으리라.³⁸⁾

이 내용을 두고 볼 때 기존 예술과 제도를 부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언제나 그 時代를 代辯할 수 있는 예술인 그중에서도 詩人의 抵抗意識의 露顯은 새로운 來日에의 藝術과 生活의 更新이 되어야 하겠다 이젠.”³⁹⁾처럼 새로운 민중적 삶에 부합한 예술의 출현에 주요 관심사를 두고 있다.

이것은 이경순 시에 기존 시와 다른 실험적 기법을 유도하는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풍의 아방가르드 미학을 추구하게 된 배경이다. 다음 시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의식과 미학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굉!
彈丸이 달아났다.

壁 넘엔
구멍난 밤이
窒息한 歷史를 흔들어 깨우고.

冊床엔
亡命의 길을 잊은
데카단티즘이
呻吟만 한다.

理論이 끝난 도래床 뱃바닥에

38) 이경순, 『그 때 그 시절 - 나의 詩的 遍歷』, 『이경순 전집』, 403쪽

39) 위의 글, 412쪽.

막걸리 방울방울
눈물 흔적이濁하고.

蠶조각이 흩어진 머리맡엔
기름 다 탄 호롱불
가물가물
臨終을 지킨다.

鼓動이 급한 心臟은
來日의 悔恨을 그려안고
가스를 吐하는 숨길만
이 밤의 地軸을 흔든다.

- 「蠶」 전문

이 시는 전위적 실험기법이 원용되고 있다. 우선 ‘蠶’과 ‘彈丸’, ‘冊床’과 ‘亡命’이 동일 공간에 충격적으로 배치됨으로써 이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말하자면 초현실주의에서 논의되는 데페이즈망(Depayment)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적 내용은 전체적으로 삭막한 역사적 현실 속에 놓여 있는 현대인들의 허무와 퇴폐, 즉 ‘데카단티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적 기법과 내용은 “구명난 밤이/窒息한 歷史를 흔들 어 깨우고.”에서 볼 수 있듯 당시 암울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의 해방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전통적 기법이나 의식으로 표현하면 당대의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경순은 특수한 상황 설정과 내용으로 이를 형상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적 기법과 미학적 특징은 아방가르드 예술의 특징이다.

사상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나키즘 미학은 비위계적인 자유지상주의 원리들에 따라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는 넓은 문화적, 정치적 운동의 일부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⁴⁰⁾ 실제 아나키즘 사상의 특질로서 아방가

40) 손쉬한, 앞의 책, 210쪽.

르드 예술은 바로 아나키즘 사상의 혁명성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다이즘을 비롯한 20세기 초반의 극단적 실험적인 문화유희들을 아방가르드라 묶어 부를 수 있을 때, 이것들의 공통적 특징은 ‘위기’의 예술이라는 점이다.⁴¹⁾ M.칼리니스쿠는 하나의 태도로서 무정부주의는 위기에 대해 진정하고도 신비한 매력을 갖고 있다⁴²⁾고 말한다. 또 아방가르드의 출현이 몇몇 사회적으로 ‘소외된’ 예술가들이 보편화된 모든 속물적 위선과 함께 전체 부르주아 가치체계를 부식시키고 완전히 전복시킬 필요를 느꼈기 때문⁴³⁾으로 볼 때, 이는 바로 아나키즘 사상이 부르주아 지배와 그 권위에 저항하기 위해 출현한 동기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기의 형식과 내용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무정부주의라는 것이다. 그 점에서 다다리스트 조르주 리베몽-드세네가 “다다의 행동은 예술과 도덕과 사회에 대한 변혁이었다.”⁴⁴⁾라고 말할 때, 이는 다다이즘이 아나키즘적 사고방식과 부합하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 것에 해당한다. 이경순의 시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쫓아 달리다가 다가서는 세월에 이마가 부닥쳐. 땅덩어리 비탈에 ‘오
늘’을 안고. 앓차! 미끌어진다 ‘虛無’가 뒹굴었다.
이것 참! 눈알이,
세모가 났다.
내일이 무너졌다.

기어코
놓쳐 버린
저

41) M.칼리니스쿠, 이영욱 외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3, 154-155쪽.

42) 위의 책, 160쪽.

43) 위의 책, 150쪽.

44) 레나토 포치올리, 박상진 역, 『아방가르드 예술론』, 문예출판사, 1996, 103쪽에서 재인용.

편으로, 발자국.

여기에— 나는 너와 뒤도 앞도 아닌. —야아 나팔을 불고 산산이 부서진 문 안에서 서 있었다.

—「脫走人」부분

구름에서 내려온다.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빈가지에푸름이피고,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애타는가슴을적시고,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물 위로로 흘러간다.

—「비」전문

「脫走人」의 “虛無”가 뒹굴었다./ 이것 참! 눈알이,/ 세모가 났다./ 내일이 무너졌다.”에서 보이는 데페이즈망 기법에 의한 이질적 병치 내지 자동기술법에 의한 낯설기하기의 충격, 「비」에 보이는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의 형태주의적 속성에 대한 다다이즘적 인식 등은 아방가르드 미학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들이다. 이러한 형태와 인식은 M. H. 에이브럼즈가 말하고 있는 아방가르드 문학의 특징들, 가령 “그들의 목표는 관례에 젖어있는 독자들의 감각에 쇼크를 주고 부르조아 문화의 규범과 신앙에 도전하는 것”⁴⁵⁾에 부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와 그것의 형식으로서 제도권 문학에 대한 반발

45) M. H. 에이브럼즈, 최상규 역, 『문학비평용어사전』, 대방출판사, 1987, 173쪽.

이자 피지배자 입장에서의 전복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경순이 다다이즘과 니힐리즘에 대해 인식한 것을 통해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일본 다다이스트 쓰지준을 만나 교유한 이야기를 쓰면서 “쓰지준(辻潤)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다다이즘을 주장했다 그의 제자가 고교신길이었다. 쓰지준은 그가 번역한 스티르너의 『唯一者と 그 所有』(自我經)가 있다.”⁴⁶⁾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쓰지준이 아나키스트이자 다다이스트로서 아나키즘 예술은 다다이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인식이다. 더 나아가 그가 아나키즘의 연장선상으로 본 니힐리즘적 방법에 있어서도 가령, “《니힐》誌는 니힐리즘사상, 문학을 집필한 동인지였다. 그런데 이 주의는 자기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地上의 일체의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상인데 극단적인 우상파괴 사회운동으로 문학에서도 그러한 사상과 사회운동에 영향 받으면서 인간의 절망과 허무를 묘사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탈출로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⁴⁷⁾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때 문학사조상 다다이즘이 이러한 니힐리즘을 구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시는 전통 이데올로기의 부정으로서 혁명예술, 즉 우상파괴의 모습으로 아방가르드 미학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이상으로 볼 때 이경순의 시는 아나키즘 사상에 밑바탕을 두고 창작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일본에서 20년 간 생활하며 아나키즘 사상과 운동에 접함으로써 그의 삶과 시작은 아나키즘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다. 그의 시에 나타난 아나키즘 양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남을 볼

46) 이경순, 『그 때 그 시절 - 나의 詩的 遍歷』, 『이경순 전집』, 373쪽.

47) 위의 글, 372쪽.

수 있다.

우선 이경순의 시적 정신은 아나키즘 사상의 제일의적 성격으로 반항 감정과 자유추구를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장미 먹은 사형수」, 「말(馬)」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민중을 ‘소’나 ‘말’이라는 대상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억압과 착취의 부당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경순의 시는 권위에 대한 저항을 니힐리즘과 성상파괴로 나타낸다. 이때 니힐리즘은 당대의 제도와 인습을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한 저항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의 시 「무하유하(無何有何)」, 「위치의 단면(斷面)」 등에 나타난 허와 무의 지향 감정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와 아울러 신 부정과 성상파괴도 허무주의 연장선상에서 권위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의 형태로 나타났다. 셋째, 이경순의 시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기 쉬운 역사와 자본주의 문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역사」, 「현장」 등의 시에서 역사가 지배의 논리에 의해 매우 왜곡돼 있음을 비판하는 데에서, 그리고 「결투」, 「태풍」 등의 작품에서 현대문명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넷째, 이경순의 시적 형식은 아방가르드 미학으로 나타나는데, 이점 또한 아나키즘 사상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아나키즘 사상의 미학적 지향점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거부와 함께 그것을 지탱하는 부르주아 미학의 거부에 있는 혁명예술론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경순 시에서 실험적 기법이라 할 수 있는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풍으로 나타났는데, 「잔(盞)」, 「탈주인」, 「비」 등의 시에 보이는 이질적 사물들의 병치, 자동기술법에 의한 낯설게하기, 형태주의적 속성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경순의 시는 권위에 대한 반항감과 자유 추구, 허무주의와 성상파괴를 통한 지배이데올로기 부정, 기존의 역사와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불신, 개인적 도전과 내면성이 강조되는 아방가르드 미학의 표출 등을 두고 볼 때 아나키즘 사상이 그의 시적 특질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희근, 「自由意志와 悟性の 美學 -이경순론」, 『월간문학』, 1975. 10, 174-185쪽.
- 강희근, 「이경순 시 연구(1)」, 『배달말』 제19호, 배달말학회, 1994. 12, 161-185쪽.
- 강희근, 「동기 이경순 시 연구 2」, 『경상어문』 제13호, 경상대 경상어문학회, 2007, 199-222쪽.
- 권구현, 『黑房의선물』, 영창서관, 1927.
- 김경복, 「한국 아나키즘 시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8.
- 무정부주의운동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1978.
- 박 환, 『식민지시대 한인아나키즘 운동사』, 선인, 2005.
- 송희복, 「경남의 지역문학과 아나키즘의 상관성」, 『경남지역의 문학』, 국학자료원, 2013, 133-171쪽.
- 양왕용, 「동기 이경순 시인의 삶과 시세계」, 『한국 현대시와 지역문학』, 작가마을, 2006, 54-94쪽.
-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이광우, 『회고와 추억』, 자가편집(비매품), 2003.
- 이경순, 『東騎 李敬純 全集』, 자유사상사, 1992.
- 이경순, 「향토와 민족문학」, 『영남문학』 제6집, 영남문학회, 42쪽.
- 이순옥, 「근대 진주 지역문학과 『三人集』」, 『지역문학연구』 제10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년 가을, 303-325쪽.
-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 -운동편』, 지식산업사, 2015.
- 정대진, 「이경순의 아나키즘 시 연구」, 『단산학지』 제5집, 전단학회, 1999.12, 315-346쪽.
- 진주시인협회, 『등불』 4집, 1948.1.

- 다니엘 게랭, 하기락 역, 『현대 아나키즘』, 도서출판 신명, 1993.
- 조지 우드코크, 하기락 역, 『아나키즘 -사상편』, 형설출판사, 1972.
- 손 쉬한, 조준상 역, 『우리 시대의 아나키즘』, 필맥, 2003.
- J.라레인, 한상진·심영희 역, 『현대 사회이론과 이데올로기』, 한울, 1984.
- 콜린 워드, 김정아 역, 『아나키즘, 대안의 상상력』, 돌베개, 2004.
- 크로포트킨, 박교인 역, 『어느 혁명가의 회상』, 한겨레, 1985.
- 크로포트킨, 하기락 역, 『근대과학과 아나키즘』, 도서출판 신명, 1993.
- K. 만하임,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아출판사, 1991.
- 레나토 포지올리, 박상진 역, 『아방가르드 예술론』, 문예출판사, 1996.
- M. 호르크하이머/Th. W. 아도르노, 김유동·주경식·이상훈 역,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5.
- M. H. 에이브럼즈, 최상규 역, 『문학비평용어사전』, 대방출판사, 1987.
- M.칼리니스쿠, 이영욱 외 역,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시각과 언어, 1993.
- 테리 이글튼, 여홍상 역, 『이데올로기 개론』, 한신문화사, 1994.
- Alexander Berkman, *A.B.C. of Anarchism*, Freedom Press, 1992.

<Abstract>

Study on Anarchism of Poetry of Gyeong-Sun Lee

Kim, Kyung-bok

Gyeong-Sun Lee went to Japan in 1920 and studied there for about 20 years, during which period he joined Joseon anarchist group <Heuk Wu Hoe> and became active as an anarchism activist, interacting with the alliances with Japanese anarchists <Black Youth Alliance> <Freedom Alliance>. Since the independence of Korea, he was active as a commentator for the anarchist newspaper 『Jayoo Minbo』. He published poetry since 1947, leaving three collections [『Life Directory』(1952), 『Ice on Which the Sun Slipped』(1968), 『History』(1976)] and a posthumous collection 『Dong-Gi Gyeong-Sun Lee Complete Works』(1992). The anarchism ideology is engrained in the poetry of this Gyeong-Sun Lee such that it is necessary to try to examine it from the perspective of anarchism.

Largely, there are four anarchistic characteristics of Gyeong-Sun Lee's poetry. First, the poetic spirit of Gyeong-Sun Lee markedly shows the sentiment of resistance, which is the foremost characteristic of anarchism. If the essence of anarchism can be said to be the refusal against control, such is well apparent in his poems 『Death-Row Convict Who Ate a Rose』, 『Horse』. The general public who cannot fight back is symbolically presented through the objects such as 'cow' or 'horse,' and he talks about the injustice of oppression

and exploitation. The sentiment of resistance found in the poetry of Gyeong-Sun Lee refers to the social protest of those sacrificed and oppressed within the social system. This is also associated with individual freedom, so the sentiment of resistance and denial of system can be said to be promoting the issue of human freedom as a social individual.

Second, the poetry of Gyeong-Sun Lee reveals the resistance against authority as nihilism. Here, nihilism refers to the resistant sentiment that denies the system and customs of the time and searches for a new order. Gyeong-Sun Lee took up anarchism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but there were many constraints against taking direct actions for freedom, which did not change much since Korea's independence, so he revealed this through nihilism and resistant spirit. The sentiment oriented towards emptiness and nothingness as found in his poems 'Mooha Yooha (無何有何)', 'Cross Section of Location' shows this. In addition, it can also be seen that his denial of deity and iconoclasm are forms of resistance against authority and controlling ideology along the line of nihilism.

Third, if the denial of controlling ideology is, after all, to deny the tradition and system that idolizes the ruler, this expresses the denial of history, which can easily be distorted by the controlling ideology, and the capitalistic civilization. This can be found in the criticism of how history is highly distorted by the logic of domination in poems such as 'History', 'Site', and in the criticism against the negativity of the modern civilization in works such as 'Duel', 'Typhoon'.

Fourth, the poetic format of Gyeong-Sun Lee is found to be avant-garde aesthetics, which can also be seen as reflecting

anarchism because the aesthetic goal of anarchism is the revolutionary art theory which denies the capitalistic system and also denies bourgeois aesthetics that support it. This manifests as dadaism or surrealism in his poetry, which induce experimental techniques distinct from his past poems, exemplified in defamiliarization by automatic description or disparate items, formalistic property and such as seen in 「Cup」, 「Gisang-do」, 「Rain」.

The literature of Gyeong-Sun Lee, in the sentiment of resistance against authority and pursuit of freedom, denial of controlling ideology through nihilism and iconoclasm, distrust against the existing history and capitalistic civilization, expression of avant-garde aesthetics which emphasizes personal challenge and internality and such, can be said to have anarchism as its poetic characteristic.

Key Words : Lee GyeongSun, anarchism, sentiment of resistance, nihilism, iconoclasm, avant-garde aesthetics, dadaism

■ 논문접수 : 2016년 3월 10일

■ 심사완료 : 2016년 4월 16일

■ 게재확정 : 2016년 4월 21일

